

학문의 죽음과 번역의 실효성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민음사)이 지난 3개월새 4쇄에 이르렀음을 나는 유심히 보고 있다. 이 책은 디지털혁명이 노동의 양식을 바꾸고 있다는 정도의 온건한 입장이 아니라, 거의 노동자 없는 경제를 전망하면서 새로운 사회변혁 속에서 인간정신의 재탄생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과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경제학의 죽음》(폴 오머로드 지음, 세종서적)은 이보다 더 논리적임에도 반응이 없어 보인다. 이 책은 원래 '경제학의 죽음'이 너무 급진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보았는지 한국어판 제목을 '경제학의 부활'이라고 개제하는 조심성을 보이기가 지 했다. 그렇다 해도 정통 경제학은 이제 운명을 다했다는 것을 엄폐할 수는 없다. 저자는 이 책을 93년에 썼는데 저술을 하는 단 1년 사이에도 일본의 불황, 미국경제의 재건, 독일경제의 몰락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기술한다. 기존 경제학이 오늘의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면 경제학은 죽은 것이나 같은 것이다.

《커뮤니케이션혁명과 뉴미디어》(방역제·책 라일, 더글러스 매클로드 지음, 한나래)를 보면 방송학·신문학도 전부 새로 써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좀 양보한다 하더라도 신문방송학은 지금 실어증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아직 새

개념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다음은 아마도 사회학 차례가 될 것이다. 디지털의 생산시스템은 무엇보다 중간관리층을 모두 실업자로 만들고 있다. 그동안 사회학의 중심개념의 하나였던 것이 중산층이라고 본다면, 중산층의 기반이 곧 중간관리층에 있었다는 것과 연계해 볼 수 있다.

디지털혁명은 곧 중산층을 새롭게 바꾸는 혁명이기도 하다. 최하단위의 노동자에게도 든든한 어깨의 노동력이 아니라 창조적 두뇌의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보편적인 현실이다. 그렇다면 사회학도 다시 구축할 때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 두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간행한 많은 학문영역 도서들 가운데 얼마나 되는 양이 더이상 팔 수 없는 책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목록으로는 존재하겠으나 그 의미는 도서관에서도 그쳐 나왔기 때문에 보관한다는 것 이상은 아닐 것이다.

또 하나의 생각은 7월부터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과 연관돼 있다. 단적으로 말해 이에 대한 우리의 현안은 1957년으로 소급되는 저작권료의 부담이다. 아도르노·호르크하이머·하버마스·라캉·데리다·푸코·틀뢰즈 등에 대해 저작권료를 더 내는 것이 우리 문화력을 취약케 하리라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부분의 논의가 본질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50년대 이후 80년대까지 상당히 중요해 보였던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도서들은 오늘의 변화 속에서 불행하지만 죽어가는 책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오히려 고전적 사상서·철학서들이 인간 생존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해 재평가·재해석·재확인을 받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그다지 심각한 경제적 부담은 없을 것이다. 새로 나오는 책들은 여차피 저작권료를 제대로 줄 수밖에 없고, 옛 책은 계속해서 번역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는 정말 바르고 훌륭한 번역을 통해 완제품 역서를 만드느냐 아니냐에 있고, 그러려면 국내 번역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 진짜 부담일 것이다.

당국이 저작권료의 부담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20억원 규모의 학술도서진흥비를 책정했다는 뉴스가 있다. 이 20억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우리의 변화에 대한 관점은 새로운 원칙을 가져야 한다. 정말 번역할 만한 책, 그리고 정말 잘 번역한 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저 유명했던 책을 여기저기 좀 알려졌다는 것만을 기준으로 아무나 적당히 번역하고 학술 도서를 냈다는 데 대해 지원하는 것은 또다른 낭비가 될 것이다. ❖

출판저널

통권 제195호/1996년 7월5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허연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김지욱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839와 금액, 주소, 성명을 필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漢文 · 漢字 · 古典

한문, 한자, 고전 전산입력, 편집전문업체

족보, 문집, 경서, 술서, 한글고서 출판 상담
C/D 족보 제작 / 각종 古典 D/B구축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15 문화빌딩 401호
전화 : 261-0046, 0047, 268-6083

고전출판 팔 만

“최고가 아니면 포기하라”

선수기질이 있는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모십니다

대우: 국내 최고의 대우
 요건: 국내 최고의 실력
 (potential, O.K.)
 채용: 1)이력서
 2)자기소개서
 3)작품목록을 아래
 사서함 「인사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th Century Plus
 21세기플러스
 a publishing Co.
 스위스그랜드 호텔 앞
 ☎(02)395-1945 ☎(02)396-3964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39-2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132호
 ☎110-611

GOOD DESIGN GOOD PARTNER

소박한 심정에, 소신껏 표지디자인



표지에 관한 스트레스 —
이제는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전화부터 주시면 대항관계자료를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양무리
출판미술의 모든 것

TEL 267-0396, 272-8097